

<총장 칼럼>

교회의 보편성이란



권호덕 총장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비몽사몽간에 있던 베드로는 거기서 초가삼간 지어 살자고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인간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 인간들 속으로 파고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인데, 이런 자세는 교회의 보편성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끼리 모여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또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한다. 복음은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복음은 지구 어느 곳이든 침투해 들어가 전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달나라로 또는 화성으로 이주해 간다면 그 곳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다. 교회의 보편성은 바로 복음의 이런 성격과 맞물려 있다.

즉 교회의 보편성 또는 카톨릭성은 교회가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퍼져 나가는 속성을 의미한다. 모든 종교와 이념을 뚫고서,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들어가 마침내 우주적으로 편만해 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보편성은 선교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교회란 외부 지향적인 것으로 세상 안에서 존재하되 세상과는 분리되지 않으며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속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예밀 부른너가 지적한 대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의 은혜, 그 분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있음을 강조하는 속성이 보편성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교회란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보편성은, 스파이크만의 지적대로, 교회에게 복음전파 사명을 요구하는데 교회에 대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범위와 초교파적인 지향성, 즉 한 마디로 포괄성을 가진 커다란 전망을 부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공간적으로 온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채우며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보편성을 지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의 생명이 온누리에 전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편성이란 세상 속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누리에 전달하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이원론적(二元論的)인 삶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교회의 보편성과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점에서 보편성을 에베소서 1:23에 나오는 “충만”과 연관시키는 스파이크만의 말은 적절한 것이다. 즉 교회는 충만해져 가는 존재인데 양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를 채우고 질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영광스러운 그의 몸을 이루는 존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엡 3:18-19)”.

동시에 이 보편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을 위한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마 5:45).

-카톨릭성(보편성)의 의미: 교회가 ‘카톨릭’이라고 처음을 사용한 것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AD 110년에 죽음)이다. 그는 자기의 서신에서 지상의 전체교회와 각 지역교회를 구별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전체교회로 묘사하고 지역교회는 주교(主教)가 계시는 교회라고 비교한다. 이처럼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로마카톨릭 교회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주었지만 사실 그 원래의 의미는 좋은 것이다. 종교개혁운동은 참된 카톨릭 교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한 분께 속해 있다는 말이다. 이 단어는 또 고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가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靈知主義) 이단들에 대항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투쟁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조한 것이다.

우리 교단은 우리의 영내를 벗어나서 세속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개혁신학으로 잘 구비되는 일이다. 신학적인 확신이 없는 한 다른 것에 의해 삼킴을 당할까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살롬나비 제33회 월례포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살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제33회 월례포럼이 13일 저녁 서울 동산교회(담임 유종필 목사)에서 ‘한국교회 아직 희망이 있다’를 주제로 열렸다.

시간 지날수록 관계 강화되는 ‘굿모닝 전도법’

이날 포럼에선 안을수 목사(공주제일교회)가 ‘굿모닝 전도를 통한 전도법’을 제목으로 강연했다. 안 목사는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은 없다”며 “나의 전도 방법은 인사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접촉점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되는 인사는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만든다”며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강화되고 더욱 발전한다. 이것이 ‘굿모닝 전도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안 목사는 “굿모닝 전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두 시간을 교회 앞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것이다. 하루 평균 6천 번에서 만 번 정도를 인사한다”고 했다.

이어 “굿모닝 전도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들이 없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3개월, 6개월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이 일로 인해 일파만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들이 도심 전체로 번져 나간다”고 했다.

안 목사는 “굿모닝 전도법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며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쉽게 말문을 열게 만든다. 인사는 모르는 사람을 친근하게 만든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인사를 받은 그분들은 저를 아주 가깝게 느끼게 된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제 인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를 오래 전부터 아는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전도가 쉬워진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양신혜 교수(대신대), 황덕형 교수(서울신대), 신현수 교수(평택대)가 각각 한국교회와 사회, 한반도 평화통일 및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

도를 인도했다. 살롬나비 상임대표인 김영한 박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jkim@chtoday.co.kr : 2015.09.13 16:12)

<재학생 간증>

신앙 간증문



M. Div. 3학년 이한나

20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선교사가 되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뜻을 가지고 칼빈대학교에 입학하여 선교학과를 지망하였지만 당시 칼빈대학교 총장님이시던 김의환 총장님의 권유로 아동보육학과를 지원하게 되어 보육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여 어린이집 교사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아는 자매를 통하여 순장교단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과 열방, 그리고 교단과 학교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북한과 열방, 순장교단과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학공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니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매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아가는 유익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루하루가 은혜가 넘치고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과 교제하는 시간들로 인해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하나님은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장학금을 통해 물질도 허락해 주셨으며, 그리고 얼마전에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입학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학기라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들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니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레위기 여러 가지 제사 추가규정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속건제, 번제, 소제의 추가규정을 언급한다. 또한 화목제의 법규 가운데 생축에 수반되는 피 없는 예물,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규례,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사법의 결론을 내린다.

2. 속건제물을 먹을 권한(1-10절)

(1) 속건제는 화목제와 달리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 속건제물은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1-5절), 고기와 가죽을 제사장들이 나누었다(6-10절).

(2) 화목제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제이기 때문에 그 제물로 축제를 벌였다. 그러나 속건제는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물을 바친 자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다.

(3) 속건제물을 제사장이 먹도록 하는 것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격려하는 의미이다.

(4) 제사장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일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다(마 10:10; 고전 9:13).

(5) 제사장이 분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탐심이 아닌 거룩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훌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탐하다가 결국 망했다(삼상 2:12-17).

3. 속건제 희생의 피를 뿌리는 장소

그 피는 번제 희생을 드리던 곳의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피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또한 죄 때문에 상함 심령을 지닌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다.

4.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11-16절)

(1) 감사하여 화목제를 드렸다(12절). 감사 희생의 제물과 함께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렸다. 유교병을 드릴 때에는 거제로 드렸다.

(2) 서원이나 자원하는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16절).

5.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1) 화제(火祭)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다(레 1:13).

(2) 거제(擧祭)는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다(14, 32절).

(3) 전제(奠祭)는 포도주(레 23:13; 출 29:40; 민 15:5)나 기름(창 28:18; 35:14), 피(시 16:4)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다. 헬라어로 “스펜도마이”인데, 개역성경의 신약에는 관제(灌祭)로, 개역개정에는 전제로 번역하였다(딤후 4:6; 빌 2:17).

(4) 요제(搖祭)란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다(30절).

6. 유교병을 거제로 드리는 상징적 의미

(1)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따라서 유교병을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부패한 모습까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다.

(2) 유교병을 제단에 올리지 않고 거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와 부패함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7.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규례(15-21절)

(1) 희생의 고기는 제사 드린 그 날에 먹어야 한다(15절).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감사하기 위함이다(삼하 6:17-19).

(2) 서원을 위한 예물은 제사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16-18절).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제3일에는 모조리 불태우도록 했다. 고기가 부패하면 제물의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3)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19-21절). 부정한 것을 만진 자도 고기를 먹지 못했다. 구약의 제물은 결국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8.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

(1) 기름과 피는 구약시대 제물의 핵심이다. 그것은 기름과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름과 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다.

(2)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9. 생축을 요제로 드리는 방법(30절)

(1) 제사장은 생축의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려야 한다.

(2) 동서남북으로 흔들어 천하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의 표시이다.

(3)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바쳐야 한다(롬 12:1-2).

(4)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히 10:1).



의명이 아름다운 이유

이재성 교수(신약학, Ph.D.)

(요한복음1:19-28)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저자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담게 한다. 매우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것이고,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멋지게 나이 들어 간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글을 보면 이런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요한은 매사에 마치 늘 품에 메모지를 소유하고 다니면서 관찰한 것, 느낀 것, 본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결례를 위해 쓰는 항아리가 몇 개였는지, 그 상태는 어떠했는지, 수가성 여인이 물 뜨러 온 시간이 몇 시였고, 그녀의 남편이 몇 명이며,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오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십자가 위해서 죽으실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지나친 피와 더불어 물이 쏟아져 나온 사실,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잡은 물고기의 숫자, 부활 후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힐링의 환경들, 심지어 베드로가 칼에 의해 귀가 베인 하인의 이름까지 그의 복음서는 상세하고 세밀한 관찰의 결과들이 기록되고 있다. 실로 요한복음은 그의 섬세하고, 정확하고, 치밀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많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많은 상황, 환경, 이름, 사건들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바로 요한, 자신의 이름이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는 곳에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만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요13:23),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요20:8), ‘사랑하시는 그 제자’(요21:20), ‘그 제자’(요21:23).

베드로가 칼로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그 종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기록했던 요한이 12명의 제자 중 한 제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바라보며 말했던 그 제자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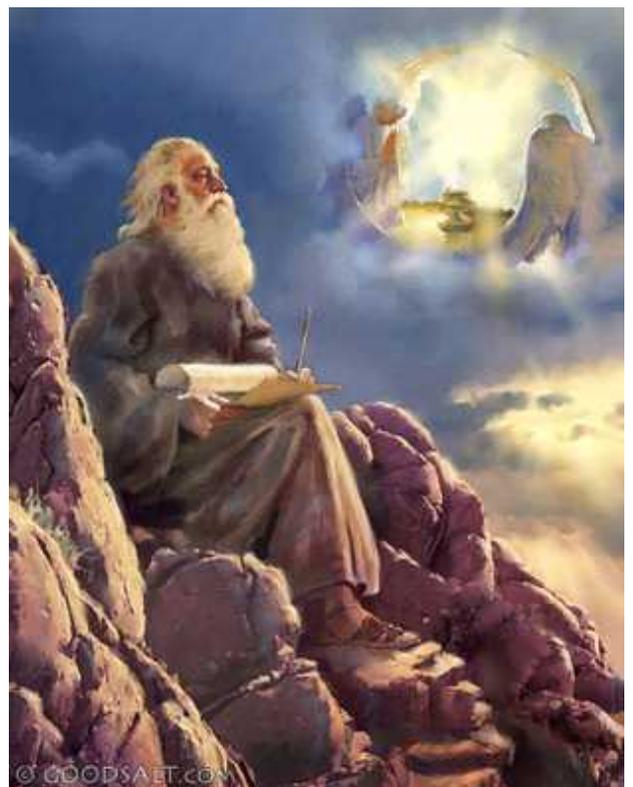
그렇다면 요한은 왜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에 관한 기록이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드러날수록 그의 인기는 높아졌고, 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했다.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냐?” 요한이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하고 대답한 것을 보면 문맥적으로 그 질문의 요지는 “네가 그리스도냐?”, 즉 그가 메시아인지를 묻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듭해서 그의 정체를 묻는 파송자들에게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요1:23).

소리! 그 역할은 한 번 발하고 사라져야 한다. 소리가 형체를 갖고 싶어 하거나, 남아 있고 싶어하면 이 세상은 소리로 인하여 살 수 없다. 소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 한다. 요한은 자신은 소리라고 말한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다하면 곧 사라질 존재,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이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하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요1:20). 적극적 부정, 손사래 치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가만히만 있으면 부와 명예와 권세,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 ...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소리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그 분이 부르시면 소리처럼 사라지는 삶! 그래서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만한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위해 모든 삶의 내용과 말과 행동을 맞춘 삶을 산 것이다. 세례요한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밭모섬의 사도요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을 그리스

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제시한다.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높아지고 자 하는 세상, 이름을 내고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시대, 책 제목을 거론하지 않아도 돈 섹스 권력이 이미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고, 기독의 많은 목회자들조차 이 마귀의 덫에 걸려 헤어날 수 못하는 시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분을 거론할지라도 자신이 사랑받은 행복한 존재였음에도 복음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한 사도요한이나, 부 권력 명예 인기 앞에서 머뭇거리없이 철저히 소리가 되고 싶어했던 세례자 요한!

오늘 이 두 요한이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네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시인의 수필>



개와 고양이 그리고 양

이경아 박사(신원예담교회)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주로 이유와 명분을 생각합니다. 하는 일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싶을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개’과에 속한 사람과 ‘고양이’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는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을 주는 사람을 왕(주인)으로 알고 따릅니다. 아홉 번 막 대하다가도 한번 잘 대해주면 그 잘해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 반대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자기가 왕(주인)인 줄 압니다. 아홉 번 잘 대해주다가 한번 잘못 대하면, 그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양값음을 합니다. 이것이 개와 고양이의 속성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주는 좋은 것이란 먹을 것과 갖고 장난칠 만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입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말이요 행동입니다.

개과에 속한 사람은 칭찬을 자꾸 하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고양이과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고만장합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압니다. 교만하다 못해 오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에 속한 인물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시다.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 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과에 속하였습니다. 양은 좋은 것, 나쁜 것, 잘한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의 음성만 알아듣습니다. 눈이 어둡고 미련하여서, 앞서 가던 양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자기가 돌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앞의 양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양은 이렇게 우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게으르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양은 ‘따라쟁이’입니다. 지도자를 잘 따릅니다. 주인의 소리를 잘 따릅니다. 오직 주인의 뜻과 부름을 따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양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뜻에 따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일

은 구약의 안식일이 주님의 십자가사역으로 인해 완전히 성취된 날이요, 주님이 제정하신 교회공동체로 한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즐겁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양이자 천국 시민인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나]는 과연 주일에 교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내]가 주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와 용서>

"당신은 과거 '살인 기계'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함께 치유를 향해 나아가할 때"

아우슈비츠 재판 81세 여성 고소인... 반성한 94세 피의자 포옹하며 용서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그뢰닝(오른쪽)이 자신에게 다가와 안아준 코르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있다. /에바 모제스 코르 제공

15일(현지 시각) 독일 튀넨부르크 법원이 나치에 협력했던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오스카 그뢰닝(94)에게 학살 공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0명의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고소로 지난 4월 시작된 재판의 1심 선고였다.

이날 굽은 허리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서 들어선 백발의 그뢰닝은 고요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이십대 초반의 은행원이던 그는 1942년 9월부터 30만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한 집단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포로들의 금품을 수거해 나치 운영 자금으로 송금하는 일을 했다. 70년이 지나 법정에서 선 그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미안하다. 일찌감치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재판 후 이목을 끈 것은 고소인 중 한 명인 에바 모제스 코르(81)였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고통

스러운 생체실험을 당하고 살아남았다.

뜻밖에도 그녀는 그뢰닝에게 징역형을 내린 법정을 비판했다. 그녀는 "그는 유죄지만 94세인 그를 처벌하는 것은 난폭한 일"이라며 "감옥에 보내는 대신 한 달에 2~4회 학생들에게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게 해야 한다. 그는 죄를 인정했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그뢰닝을 '용서'하기로 한 것은 앞선 재판에서였다. 지난 4월 열린 한 재판에서 그뢰닝이 "나는 30만명 포로의 죽음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시인하자, 그녀는 재판이 끝난 뒤 그에게 다가가 살짝 포옹했다. 코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고마워 인사를 하려고 갔었다"고 했다. 포옹을 받은 그뢰닝이 그녀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췄다. 법정에 있던 모두가 놀란 눈으로 70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이 둘을 바라봤다. 코르는 "그를 심판하러 왔는데 볼 키스를 받자 그저 두 인간 사이의 애정을 느꼈다"며 "그는 비록 살인 기계의 작은 나사였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15일 선고 후 그뢰닝의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르는 재판이 끝난 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화해는 내게 좋은 일이었다"고 밝혔다.(조선닷컴 김민정 기자, 입력: 2015.07.18 03:00)

<조직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7)



이동영 교수(Dr. theol., 조직신학)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삼위일체교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교리와 관련된 동방과 서방의 방대한 교부문헌을 섭렵한 후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간파했던 인물은 19세기 로마교회의 교부학자였던 드 레농^{Th. De Regon}이었습니다. 드 레농이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방식의 차이점을 구분한 이래로 동방과 서방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교파를 불문하고 드 레농의 분류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 레농에 따른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방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드

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지 방문>

삼위일체론에 대한 서방의 이해방식: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 von Hippo와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von Aquin에 의해서 완성적으로 대변되었던 서방의 전통은 한 분 하나님을 전제한 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 즉 세 위격들로 존재하시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동방의 이해방식:

카파도키아의 세 명의 교부들, 즉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 Basilus von Caesarea, 329-379, 나치안츠의 그레고리우스 Gregor von Nazianz, 390 (사망), 니짜의 그레고리우스 Gregor von Nyssa, 330-395로 대변되었으며 20세기에 두미트루 스타닐로 Dumitru Staniloae와 존 찰리올라스 John Zizoulas에 의해서 재천명된 동방의 전통은 세 위격들, 즉 성부, 성자, 성령을 전제하고, 이러한 세 위격이 어떻게 하나가 될 unitas, Einigkeit을 이루고 있는가를 설명하려 한다.1)

서방과 동방의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방식의 차이를 질문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방의 질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 위격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동방의 질문: 세 위격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동방과 서방의 질문은 얼핏 보기에 대동소이한 질문 같지만, 삼위일체교리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다른 이해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매우 상이한 질문입니다. 서방은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을 삼위에 앞서서 강조합니다만, 동방은 삼위, 즉 세 위격들의 구분을 한 하나님의 본질에 선행시킵니다.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방식의 차이와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삼위일체교리를 다룰 기회가 있을 때 상세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선교 비전



이재섭 목사

(본교 Th.M.과정)

2015년 에세이스트 신인상 수상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전 GMS 선교사)

지난여름 이르쿠츠크 순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르쿠츠크는 저희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곳으로 저희 자녀들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자녀 셋이 이 도시에서 스폴라(초중고가 한 건물에 있음)를 졸업하고 대학교(학석사 통합 과정)까지 졸업했습니다.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 중심 도시로 남한 약 8배에 이르는 방대한 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도시임에도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 철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이르쿠츠크에 주 사무소를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칼 호수를 가기 위해서는 이르쿠츠크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름 동안 직항로가 열립니다. 저와 사라 선교사 그리고 동시통역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방문한 찬미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 공항을 떠난 지 네 시간이 채 못 되어 이르쿠츠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목사님이 마중을 나와 주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하일 목사님 차량으로 약 20분 걸려 숙소인 이르쿠츠크 1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 교회는 120년 역사를 지닌 동시베리아 장자교회입니다. 15년 걸려 지은 신축 성전이 거의 완공 상태라 보기 좋았습니다. 성전 지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튿날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목사님과 동생인 이반 세르게이비치 목사님이 방문해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찬미가 동시통역을 해 주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여러 마을을 둘러 볼 예정이어서 바쁜 일정에

1) Dong-Young Lee, Die Trinitätslehre und die trinitarische Praxis, Dipl., Vrije Univ. te Amsterdam, August, 2007, 5. 참조. M. R. Barnes, De Regon Reconsidered, in: Augustin Studies, Vol. 26/2, 51-79.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담요가 50장 정도되어 선물로 챙겼습니다. 먼저 약 200km 떨어진 브리야트 종족 노보 레니노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미하일 목사님 차량으로 길 양옆으로 숲이 우거진 시베리아 시골 길을 달렸습니다.

60km 정도 지날 무렵, 데카브리스트(12월 혁명) 반란 주동자들을 가두었던 감옥이 보입니다. 약 100km 더 가자 삼손 목사가 사역하는 빌치르 교회에 도달했습니다. 40km 떨어진 노보 레니노 마을에서 먼저 모임을 갖기로 해 삼손 목사만 태우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모임 장소인 일리야 청년 집을 들어서자, 일리야 부모인 뽀뜨르 성도와 레나 자매 그리고 할머니 성도님과 손자가 참석했습니다. 수년 전 일리야 청년을 멀리 옴스크에 있는 3년제 신학교에 유학 보냈는데 2년 마친 상태에서 그만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도중하차했지만 훈련받은 지도자라 사역에 많은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야 집을 나서면서 언제라도 신학교에 복학해 남은 1년을 마치기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손 목사와 함께 빌치르 교회로 갔습니다. 빌치르 교회는 한국 교회 성도님의 후원으로 삼손 목사 집 한쪽에 문을 내어 세운 교회입니다. 저희가 평신도 지도자였던 삼손을 전임 사역자로 간주해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얼마 전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삼손과 일리야 모두 시베리아 원주민의 한 부류인 브리야트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거의 대부분 샤마니즘을 신봉하고 있어 마을마다 무당이 있는 데 비해 기독교 신자는 인구 1000명당 한 두 명 정도입니다.

이르쿠츠크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장거리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알혼 섬 가까이 위치한 엘란츠는 비교적 큰 마을로 도심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차례 방문한 곳 이어서 성도님들이 저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평소 세 분의 성도가 예배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분이 더 와서 인해 뜻깊었습니다.

이웃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자 두 분의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샤만의 세력이 강해 기독교 모임에 가는 것을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말에 기도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다른 바이칼 호수 인근 마을인 발샤야 갈로우스나야를 방문하자 여섯 분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브리야트 마을에 이 정도 성도가 모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올 여름 너무 가뭄이 심해 수심이 깊고 거대한 바이칼 호수가 1m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한과 아사는 자체 교회 건물이 있는 큰 마을입니다. 5명 내외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긴 겨울 동안 땀감이 필수적이라 차량 한 대분 연료비를 헌금했습니다.



(바이칼호수)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목사님 큰 아들 지마가 멀리 시골 마을 사역자로 갔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 둘과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인구 600명 정도 작은 마을인데다 주위에서 압박을 가해와 힘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집값이 싸서 저렴하게 예배 처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얼마간 헌금했습니다. 루블화가 약해져 수년 전에 비해 40% 정도 가치가 높습니다.

주일에는 이르쿠츠크 1번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15년째 신축공사 중인 이르쿠츠크 1번 교회는 준공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라 영향력이 큰 탓을 우려했는지 선뜻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판 중입니다.

오랜만에 앙가라스크 제2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앙가라스크는 이르쿠츠크 위성 도시로 군수공장이 많아 1990년 개방되기 전까지 외국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신축 당시 저희가 건축헌금을 해 공사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흔 가까이 된 아르쭌 목사와 친구가 저희를 영접했습니다. 애써 지은 성전이 비좁아 증축을 해야 할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 아침, 바이칼 호수의 길목에 위치한 발샤야 레츠까 마을을 찾았습니다. 수년 전 신림동에 있는 협력 교회 헌금에 힘입어 새 성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젊은 평신도 사역자인 샤샤 부부가 교회를 새로 짓기보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성전으로 내주기로 하고 그 옆에 새 집을 지어 옮겨가는 것이 경비가 덜 들고 유리해 보인다고 조금씩 건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마을 방문에 앞서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목사님에게 건축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일행이 방문하는 동안 샤샤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교회로 등기 이전해 주었습니다. 발샤야 레츠까 마을은 바이칼 호수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진 리스비얀까 가까이 앙가라 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원에 힘입어 아름다운 마을에 교회가 서게 되어 기쁩니다.

러시아를 떠나기 수일 전에 사라 선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에게 핸드폰 선물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하기에, “좋은 생각이다. 먼저 본인들의

사를 들여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젊은이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중견 목사님들이 없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목사님들은 때때로 친절을 사양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하자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면 가벼운 게 좋겠다고 말해, 미하일 목사님과 함께 삼성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안현수가 러시아 삼성 모델이 되어 한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핸드폰 두 개를 구입해 선물하자 신기한 듯 여러 가지 기능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방문하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담요를 비롯해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손님 가족을 맞게 되어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당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6)



사도행전 1:1-6:7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1)

장석주 교수(신약학, Ph.D.)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의 주제로 1:6에서 처음 명시된다. 사도행전 1:6의 질문이 하나님 나라의 때와 회복 영역에 대한 사도들의 무지를 드러낸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이루어내실 주님에 대한 확신은 충분히 담겨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다(눅 17:20-22; 19:11-27; 24:21).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의 핵심이요 동시에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된다(행 1:22; 2:31; 4:33). 칼빈이 주석하듯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나 ‘부활’이 언급되는 구절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거나 완성될 표적으로 기능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기독교론은 복음을 ‘약속과 성취’로 설명하려는 누가의 의도에 적절하다(눅 1:1-4).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언급은 사도행전 2장 34,36절이다(행 3:18-19; 4:33; 5:14; 19:20).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이시다는 기독교론적 복음을 선포한다. 여기서 예수의 승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마 28:18, 빌 2:11참고) ‘주’의 천

상적 등극으로서 구약의 등극시 시편 110편의 예언이 성취된 구속사역으로 설명된다. 누가는 ‘주’ 기독교론의 결정적 선포를 위하여 1장에서부터 예수의 승천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1:2, 9, 11, 22).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예수께서 지상사역의 결정적 국면에 가르치신 가르침을(눅 20:42이하) 제대로 깨닫고 계승하는 사도가 되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원래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초월적 선재의 ‘주’이시다.

한편 여기서 주 기독교론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1:8) 베드로는 성령 받음(2:1-4)이 승천하신 주님이 부여하신 결과(2:33-38)로 선포한다. 성령을 받은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장 명시하는 표현인 주 기독교론을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승천하신 주 예수에 의해 보내져서 예수께서 ‘주’이시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기독교론적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적 교회나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늘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누가가 성령의 선포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주 기독교론을 선포하는 원인이라면 성령의 구원론적 차원을 간과한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선포되는 구원론적 복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욱 그 구원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을까! 누가는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에 많이 사용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에서 드물게 사용하며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이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전파하고 있음을 명시하려 한다.

타대학의 애고심과 지원 1



김희은 사모(기장측 동명교회)

그 어느 해의 일이다. 나는 신학 3학년생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과 무오하다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은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일에 대한 확신에 저울질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 신학대학을 위해, 진리를 표명하며 나아가는 기독교 대학, 기독교 중고등학교들을 위해 기도해야함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맡겨진 일임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특히, 신학대학은 교회와 교단의 지원이 바탕이 됨이 확실하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고 대학 진학할 때도 미션 스쿨 범주 안에서 선택,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여성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한 '서울여대'에 입학하게 됨이 복된 일이었고 또한 지금,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과 '주석-설교반'에서 쾌재를 부르며 공부할 수 있음도 복이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내게 주신 큰 복이다. 요즈음, 하나님으로 인해, 학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참 많다.

올해는 내게 추가로 주어진 일이 있다. 서울여대 동창회 선교부의 일이다. 하나님이 서울여대와 함께 하심을 본다. 그 확신이 있기에 내가 참여하는 작은 일이 학교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임을 때때로 묵직하게 깨달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선후배가 사랑 가운데 뭉친다. 선배님들의 학교 사랑은 대단하다.

3.1운동 직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여성 고등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대학 설립을 결의하였지만 식민통치의 억압된 상황에서 좌절되어 결국 해방이후 결의한 지 38년 만에 개교하게 되었다. 故 고향경 초대 명예총장님은 각 고등학교를 순회강연하며 여성인재를 모았고 선배님들은 당시 학장님과 오랫동안 동거동락 하였다. 전 학년의 생활관 생활, 실습 주택, 농촌 봉사 활동, 예배, 여성 지도자로서 테니스, 자전거부터 댄스, 사격, 궁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접목된 사랑의 만남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켜켜 새겨진 깊은

추억과 배움과 실천이 학교 사랑으로 남아진 것 같다.



(서울여자대학교 전경)

이번에 동창회에서 「서울여대 모교 사랑 100억」기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100억은 큰 액수임에도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고 쉽다. 2만 명의 동문이 한 달에 13,900원씩 36개월, 합 50만 400원만 납부하면 그 힘이 모아지는 것이다. 카페에 가서 한 달에 커피 두 잔만 안 마시거나 내지는 웬만한 밥 한 끼 외식을 안 하면 되는 일이다. 2년 만에 이루려면 2만 900원. 이 일로 하나님의 학교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일이다. 이 일에 몇 백, 몇 천만 원을 먼저 내며 동참하는 동문으로 스타트 하였다. 나 역시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작은 힘을 실어 보기로 하였다. 13,900원 100계좌가 모이면 5천만원, 200계좌가 모이면 1억이 된다는 계산을 하며 성경대학원도 이러한 사랑의 기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해 본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원을 시작한 지 1년 반, 그렇게 3학기를 하면서 총장님, 교수님께 너무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금할 수 없다. 강의를 하시고 그 먼 거리 천안, 분당까지 밤 10시, 11시를 넘겨서 댁에 가신다. 그럼에도, 주어진 강의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강의를 해 주신다. 수업 마치고 나오는 길,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먼데까지 언제 가시나?' ... 헌신이란 생각을 접을 수가 없다. 이는 오직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첫 학기에 알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 나의 신앙의 틀이 더욱 견고하게 잡혀갔고 깊이가 더해 간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주간을 지날 때마다 이 시간을 기다렸으며, 한 주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중의 하나가 되었다. 최고의 강의를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한다. 이러한 감사가 학교에 대한 애정과 바람으로 연결된다. 이곳을 오가며 출입구, 주차장, 강의실, 작게는 칠판, 비가시적 부분까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순장 교단을 존속할 수 있게 하는 목회자 세우



는 신학대학,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위한 기도의 지원과 더욱 중요한 재정적 지원은 씨줄과 날줄을 엮어 든든한 완성작을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섬김과 사명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정'을 필요한 곳에, 목마른 곳에 사용함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 인구수 감소로 각 대학마다 소멸 될까 비상인 이 때,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도서관들이 속속 들어서며 서로 학교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시점이다.(계속)

<선교신학>

영적 전쟁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평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을 중심으로²⁾

배준섭 교수(선교학)

본 논문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의 신학적 쟁점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평가하기 위함이다. 소위 '제 3의 물결'은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을 계승한 성령운동이다. 이전의 두 물결처럼,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은 성령의 은사를 수반하여 기적활동과 사단과의 능력대결을 통한 승리주의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제 3의 물결에서 주장되는 "SLSW"는 선교학적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신학적 쟁점들이 있다.

SLSW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SLSW의 약점은 선교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다. 첫째는 성경해석이 매우 상황적이다. 둘째는 너무 개인의 능력대결에 치중한 나머지, "선포된 복음의 능력"(power of Kerygma)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상 결론적으로 SLSW의 신학적 쟁점에 관한

2) 이후 전략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의 용어는 지면의 한계와 표현의 편의상 SLSW로 기술하고자 한다.

평가에서 '사단의 정체', '귀신들림', '땅 밟기'와 '귀신축사'의 개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성경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SLSW으로서 능력대결에 참여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실상,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들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강조한다.

I. 서론

교회성장학파가 제기한 영적 전쟁의 주제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 일부 교회지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흥미롭게 갱신된 영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신사도 운동가들은 사도직의 부활을 경종으로 은사주의 운동을 계승하여 인간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존재와 마귀의 능력을 강조했고,³⁾ 교회는 그 영향을 받아 선교를 위해 악한 영적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은 최소 1970년대 이후 관심이 증폭되어⁴⁾ 1990년대에 존 Wimber(John Wimber)⁵⁾의 '제3의 물결운동'으로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⁶⁾ 이런 물결의 흐름에 맞추어 능력대결로서 영적 전쟁론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은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톰 화이트(Tom White), 존 도슨(John Dawson), 프랭크 페레티(Frank Peretti) 조지 오티스(George Otis),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e) 신디 제이콥스(Cindy Jacobs)와 같은 자들이다.⁷⁾

3) Michael Pocock, Gailyn Van Rheenen, and Douglas McConnell, *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Grand Rapids: Baker, 2005), 184-85.

4) Michael Harper, *Spiritual Warfar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0), 11-12. 마이클 하퍼(Michael Harper)는 영국의 은사주의 운동을 선도했던 지도자이다. 그는 '영적 전쟁'을 은사운동의 갱신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1970년에 그의 저술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5) John Wimber, *Power Evangelism*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6), 15-31.

6) 이런 증폭적인 관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2차 로잔대회의 마닐라선언문(1989) 11항에서는 영적 전쟁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해야 함을 호소했다. 또한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WEA Mission Commission)의 주최로 모인 이과수대회(1999)는 로잔대회의 논의를 재검토했는데, 이과수선언문의 6항은 능력대결로서의 영적 전쟁이 복음전파를 대신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3차 로잔대회에서 케이프타운선언문(2021) 5항은 하나님 구원사역에 있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총체적임을 논의하였다. 즉,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귀신축사나 신유사역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모든 선교영역에 적용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참조) 이종우, "영적 전투 이해증진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론 고찰," 『선교신학』 35 (2014): 200-201.

7)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영적 전쟁론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의 저서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은사운동과 영적 전쟁에 관해 다양한 정보와 신학적 견해들을 비교하려면 다음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은 다소 성경적 가르침이나 세계관과 충돌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소위 능력대결로서의 영적 전쟁의 사상은 구약성경에서 고대 근동지역이나 오늘날에도 애니미즘이 현저히 나타나는 지역에서 이교적 세계관으로서 각 지역의 전통신앙(ethnic traditional beliefs)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본 논문은 영적 전쟁에 관한 신학적 쟁점들을 밝히고, 그들의 주장하는 신앙적 신념과 실천(Praxis)이 과연 성경적 관점에서 바른 것인가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한다.(계속)

<욥기서 강해>(7) 마지막회

“첫 번째 대화 1”



박 영 준 교수(구약학, Dr.theol.)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끝나고 이어지는 4-27장에 걸쳐서 본격적인 대화(혹은 논쟁)가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는 의, 경건, 행복과 불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의견만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토론의 목적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본문에서 욥과 세 친구는 4가지의 중심 개념을 갖고 대화 한다. 이것은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과 그의 운명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인과응보 사상).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게 갚으신다. 셋째,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다. 넷째, 고난 중에 회개는 꼭 해야 하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욥을 포함한 네 사람 모두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세 친구의 입장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엘리바스는 고난은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빌닷은 전통지혜의 옳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소발은 모든 인간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화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혹은 4-14장과 15-24장의 두 단계에 걸친 논쟁의 말과 25-27장의 부록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다). 우선 대화의 첫 단계인 4-14장은 보상윤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한다. 욥의 친구들은 위의 4가지 중심개념을 전개시킨다. 그러나 욥은 감당하기 힘든 자의 고난 앞에서 이러한 보상윤리에 바탕을 두는 의로운 세계질서가 깨졌다고 확신한다. 세 친구의 고전지혜적인 충고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으로 대응한다. 대화의 두 번째 단계인 15-21장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토론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의로운 자의 운명을 우울하게 그리고 있다(15: 18; 20장). 세 번째 단계인 22-27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한 번 더 강조한 후에 대화를 끝맺는다.

욥의 친구들 중 처음 말하는 사람은 데만 출신의 엘리바스이다. “데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돔 지역에 속한 지명이라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엘리바스는 4장 1-11절에서 욥에게 훈계조로 말을 건넨다. 우선 2-6절에서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는 욥을 보면서 말을 시작한다: “너에게 누가 말을 걸어도 네가 싫어하겠지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욥 4:2)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부재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7일 전에 도착했지만,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고난을 이길 여력도 없어 보였다. 그는 친구를 위해 기다리다가 결국 입을 연 것이다. 우선 그는 과거 욥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열거한다: “너는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쳤고, 지친 자들에게 용기를,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욥 4:3-5)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이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왔으며, 용기를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욥이 지금 그런 위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상담가였고 신앙의 모범이었으나, 지금 욥은 과거의 그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바스는 6절에서 욥의 과거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 “네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의 자량이 아니었느냐? 그분에 대한 소망이 너의 미래가 아니었느냐?”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면, “너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고, 바른 길만을 걸지 않았느냐?”인데, 이 말은 그동안 욥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앙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이러한 신앙을 잃어버린 욥의 현재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7-11절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 부분에 나타난 그의 충고를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을 참조할 것. Thomas H. McAlpine, *Facing the Powers: What Are the Options?* (Monrovia, CA: Marc, 1991); David Pawson, *Fourth Wave. Charismatics and Evangelicals: Are We Ready to Come Together?* (London: Hodder & Stoughton, 1993); Edward Gross, *Miracles, Demons & Spiritual Warfa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5); John. F. MacArthur, *Charismatic Chao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R. Kent Hughes, *The Coming Evangelical Crisis: Current Challenges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and the Gospel*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Hank Hanegraaff, *Christianity In Crisis: The 21st Century Paperback* (Nashville: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12).

8) Pierre Gilbert, “The Third Wave Worldview: A Biblical Critique,” *Direction* 29 (2000): 162.

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7절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훈계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정확히 움직이는 곳이며, 죄를 저지르는 악인은 그분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욥에게 이러한 충고는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망한 것은 모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즉 욥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네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은 것은 바로 네 죄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자식을 잃은 욥에게 이러한 충고는 사실 관계를 떠나서 듣기 힘든 말이다. 욥은 전에 자식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 왔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해서 매주 번제를 드렸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가 과연 욥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상담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는 세상에서 소위 잘나가는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이다. 자신들의 성공이 바로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신앙과 세상의 성공은 별로 관계가 없다. 성공위주의 설교와 성공한 사람이 마치 신앙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다. 둘째, 엘리바스의 말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인과응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다. 그는 기계적 인과응보라는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성,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좁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능력을 인간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로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

을 인정하고 있는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낱 인간의 종교에 이용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이데올로기에, 정치적 목적에, 개인의 목적에 이용당하는 무능력한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고백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메시지 개요와 흐름에 대한 제안

- 1) 3장에 이은 4-27장에 나타나는 대화에 대한 설명
- 2) 욥과 세 친구의 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
- 3)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를 설명하고 해석(어떤 문제가 있는가?)
- 4) 가르침과 다짐(고난 당하는 자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할 것)

<편집실>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요소

권호덕 교수

(2008년 7월 7일 백석대학교 아마르 동아리 하계 워크숍 공개강좌 한 것임)

1. 인격준비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면을 간과한다. 이들은 단순히 좋은 정보만 얻어 교인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큰 오산이다. 종교개혁 신학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마음과 인격을 준비하는 일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인간이라는 기관, 영혼과 육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따라서 설교하는 인간이 가장 효과적인 성령의 기관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다.

1)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구비하고 있다.

2)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마귀에 속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말을 잘 하는데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꾼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 거짓된 인간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는 일에 익숙하다. 놀라운 것은 사탄은 이런 거짓된 인간을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는 하나님을 사

량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3) 설교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최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랑이 없을 때 설교자들은 결국 청중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해 버리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4) 설교자는 시간의식, 역사의식이 구비되어야 한다. 항상 설교하는 시간이 생의 마지막인 줄 인식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설교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5) 우리말 이해: 아무리 고전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우리말로 잘 번역하거나 표현할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를 위해 우리말의 특징을 잘 배워야 한다.

2. 성경 본문이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시킬 때 교회는 사탄의 회(會)가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세 로마 교회가 잘 입증해 주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물론 좀 안다 해도 알레고리 해석을 함을 통해 교회를 수령으로 몰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법적 역사적 연구 방법을 개발했다.

1) 성경 언어교육(히, 헬, 아람)

2) 문법적 이해: 세 가지 언어의 문법을 잘 이해함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연구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우리말의 구조와 전혀 다름을 감안해야 한다. 언어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히브리인들과 한국인 사이에는 의식구조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역사적 이해: 더러 성경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성경은 항상 어떤 역사적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없다.

3. 청중 이해 및 피선교지의 토양 연구

복음이 피선교지 사람들의 심성 속으로 파고들어가려면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토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 지역에는 외식자(外飾者)들이 팽배해 지는 법이다. 이런 데서는 문화 변혁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이나 찬양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연구해야 한다.

1) 피선교 지역 언어 연구: 언어는 그 지역민들의 사고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한국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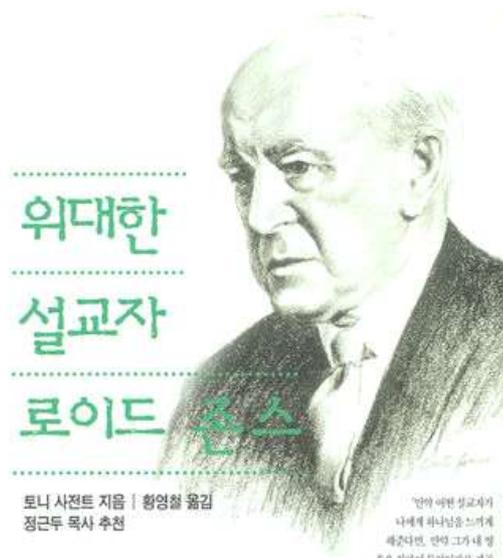
2) 기후 풍토 지리 연구: 이런 자연 환경은 그 지역민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내륙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물론 기후의 사람들과 지중해성 기후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3) 한국 음식물: 한국 음식과 서양음식의 차이점은 결국 상호 간에 생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먹는 탕은 서양에는 없다.

4) 한국 역사와 한국 철학: 역사란 그 민족의 삶의 흔적을 그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면 그 민족을 이해할 수 있다. 철학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의 철학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5) 신화 연구: 신화는 항상 그 민족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6) 종교분석: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종교이다.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반도에 있던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샤머니즘은 물론 불교와 도교 나아가 유교까지 이해해야 한다. 등등.



위의 세 가지를 준비하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정곡을 찌르는 설교를 할 수 없다. 만일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가리가 될 것이다. 반면에 이런 요소가 구비된 설교자들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

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현대 많은 교회지도자들은 '존재'(Sein)를 준비하기 보다는 '소유'(Haben)을 준비하는 일에 열중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목회 요령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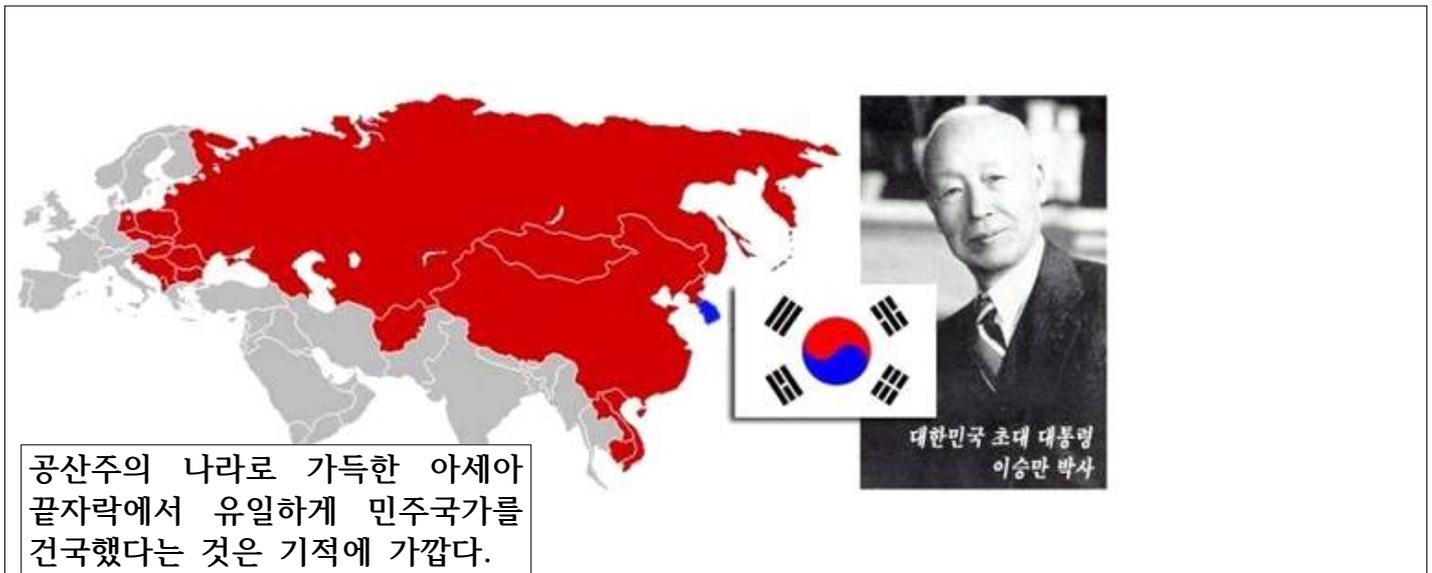
매우 흥미로운 것은 양(洋)의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교회에도 목사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 교회는 주일날 빈자리가 없다. 반면에 인본주의적인 설교자가 있는 교회는 텅텅 빈다.

교인들은 목사들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며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교해야 할 것이다. 현대 교회들 가운데 실패한 교회는 설교자가 예수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목사의 성품이 무언가 꼬여 있을 경우 교인들은 제빨리 그를 알아보고 피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림으로 본 건국의 기적



공산주의 나라로 가득한 아세아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민주국가를 건국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는 서양 사람들의 몸집에 비해 매우 작았으나 미국인들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세계정세를 꿰뚫는 혜안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 주었다.

성경적 “개혁주의신학”을 바탕으로
영적지도자를 양성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16년 신·편입생 ‘특별장학생’모집

원서접수: 11월 16일(월)~12월 10일(금)
전형방법: ① M.Div./ Th.M./ M.A. 신·편입생:
서류전형 (1차), 면접(2차)
② Ph.D.편입생: 서류전형(1차), 영어 및
전공시험(2차), 면접(3차)
전형일시: 12월 17일(목) 오전 10시
특혜: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성적우수자 장학금

문의: 02-845-77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4가길 45-1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 도보 7분)

1. 대학원 과정

- ▶ 목회학석사(M.Div.)과정
모집정원: 신·편입학 00명 (주·야간)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전공
불문)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3) 일반대학 및 본교가 인정하는
4년 제 신학교 졸업(예정)자
4) 세례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 신학석사(Th.M.)과정
모집정원: 신학전공(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주석·설교, 선교) 00명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목회학석사
(M.Div.) 학위소지자

2) 학사 학위 소지한 자로서 목회학연구
과정(M.Div.eq.) 이수자

- ▶ 문학석사(M.A.)과정
모집정원: 성경학 00명, 선교학 00명,
상담학 0명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 ▶ 철학박사(Ph.D.)과정(편입생 모집)
모집정원: 신학전공(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 0명
지원자격:
1) 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목회학석사(M.Div.) 및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한 자
2)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선교학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동일 전공의 석사(M.A.) 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목회학석사(M.Div.) 학위가 없는 자는
M.Div.과정 필수 4과목을 이수해야 함

2. 평생교육원

- ▶ ‘기독교상담반’(상담연구원)
교인들 또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상담을 위한
인재를 키우는 과정
- ▶ ‘평신도 조직신학 교사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지식을 체계화시켜주는 과정
이 과정은 특별히 구역장들의 성경지식을 체계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됨
- ▶ ‘목회자 주석-설교 연구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주석하는 일을 숙지시키고
그 주석에 근거하여 설교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
마하는 과정